

내투기악재 與 '물타기' 역공 vs 野 '법대로' 강공

민주당, 서울 내곡동 투기·부산 엘시티 의혹 재점화 국민의힘, 與 '흑색선전' 강력 비판·법적 대응 불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에 승패를 가를 중대변수로 급부상하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선거 전도 본격화된 형국이다.

고(故)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부산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LH투기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에서 아권을 겨냥한 부동산 비리 의혹을 동시 제기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이자 현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을 내세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가족·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일대를 둘러본 뒤 민주당의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그건 선거 때 되면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인데, 진실도 아닌 것을 펼칠 때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유경준·전주혜 의원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오세훈 예비 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오세훈 후보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10년 전 재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다시 한 번 우려먹는, 끔찍한 흑색선전"이라며 "비겁하게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는데, 정당하다면 후보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라"며 박영선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부산 엘시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엘시티 리스트'에서 야권 인사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당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고 있다"며 민주당 부산시 광역기초 의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국민의힘 LH부동산투기조사특위 권성동 위원장과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LH부동산투기 진상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엘시티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의 물타기나 이런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며 "부산 엘시티 문제는 야당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차라리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공식적으로 제기



서동용, 환경부와 포스코 광양제철 대기오염 논의 국회 대정부질문 지적 후속 보고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최근 국회의 원회관에서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 후속 조치를 보고받았다.

또 국회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동용 의원은 한정에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2019년 민간협업체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실과 제철소 내 야드장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환경부에 개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서동용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브리더 배출 오염물질 관리기준 마련 등을 포함해 환경부가 관리방안을 체계화하고,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서동용 국회의원과 의 논의자리에서 2019년 마련된 브리더 개선방안 합의 안인 △용광로 대기 시설 개선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발 계획 보고 및 점검 체계 구축 △오염물질 배출 시 불투명도 측정·기록·저장 등 시설관리기준 마련 △코크스·석탄 등 원료 야드장 비산먼지 방지 시설 신설 등 포스코가 마련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그간 포스코가 민간협업체 합의안을 비롯해 산재사고 방지대책 등 수많은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보다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광양만권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정유, 비료, 석유화학을 소재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체계적인 환경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광양만권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 주윤식 도의원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

"민주, 면접서 오히려 피해자 탈락...반드시 승리해 복당"



4.7 전남도의원 보궐선거 순천 제1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주윤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지역 정가를 술렁이고 있다.

주 후보는 10일 순천만정원로76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면접공천과정을 문제 삼고, 이를 심판하기 위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지없

이 지역발전 공약은 없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선거만 등장했다며, 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언론은 팩트 확인 없이 가짜뉴스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운함을 표했다.

또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는 일부 시·도원은 부화뇌동하여 민주당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편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며 "지역위원회 일부 시·도원들의 편 가르기가 비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순천은 새로운 국회의원과 함께 순천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기대는 여지없이 허무하게 무너졌다"며, "해명이나 설명도 없고, 또 뻔뻔하게 말 뒤집는 태도,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치행태에 순천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무소속 출마의 명분으로 후보가 아닌 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위원장님을 한 번만 만나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다"며, "소병철 위원장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정치는 생각이 달라도 소신껏 행동해 모두를 화합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의 일부 시·도원의 줄서기를 비판하고 시민 화합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결과도 언급하며,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주윤식을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사전에 상대 후보측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행위로 치러진 공작선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조작된 허위문자로 주윤식을 해당 행위자로 만들어 면접에서 낙선시키려고 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에, 자신은 가짜 허위 진정서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